

1. 「세계의 문화유산」이란

대한민국의 문화재 3점이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되었다고 한다.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팔만대장경 및 판고와 종묘등 3점이, 전세계 142개국으로 구성된 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산하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위원회」 19차 총회(95. 12. 4~12. 9, 베를린)에서 1995년 12월 8일 위원회 소속 21개국의 표결을 거쳐 등록이 확정 되었다고 한다.

UNESCO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위원회는 1972년 제17차 UNESCO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975년부터 발효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비로소 여기에 가입한 것이다.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등록될 경우에는, 유네스코의 공식 휘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들 유산의 인류사적 가치를 공식 인정받게 되며, 보존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세계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으로 등록된 건수는, 문화유산 326건, 자연유산 98건, 복합유산 16건 등 440개 유물 유적이 세계 100개국에 등록되어 있다.

각국의 등록상황을 보면, 프랑스 20건, 독일 15건, 영국 14건, 미국 17건 등과,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만리장성, 자금성 등 14건, 일본의 교도시(京都市)와 법룡사(法隆寺) 등 5건, 인도 21건, 인도네시아 4건, 태국 4건, 베트남 2건, 필리핀 2건 등 여러나라의 유물 유적이 등록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석굴암 등은 1994년 9월에 등록신청을 마친 이후, 1995년 2월 유네스코가 파견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1995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세계문화유산집행이사회를 통과해서 19차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된 것이다.

특히, 한국은 원래 석굴암과 해인사-대장경 판고 및 종묘만을 등록 신청했으나, 1995년 2월 이들 유산을 실사한 유네스코 파견전문가 데 실바氏가 오히려 「석굴암은 불국사와, 대장경 판고는 해인사와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이번에 함께 심사를 받게 돼 무난하게 등록을 보게 된 것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세계적으로 문화국가임이 증명되었고,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보다 문화적 경제적으로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들이 이미 문화유산 유적을 많이 등록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더욱 많은 문화유산 유적의 등록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임은 물론, 유지 보존과 새로운 발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등록된 3건의 「세계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약술코자 한다.

2. 불국사(佛國寺)와 석굴암(石窟庵)

(1) 불국사(佛國寺)

불국사는 법흥왕(法興王) 27년에 창건한 것으로 진흥왕(眞興王) 6년에 1차 중수하고 문무왕(文武王) 10년에 국상 김대성(國相 金大城)이 현세이친(現世二親)의 공덕(功德)을 위해 25년의 세월을 소비하여 대규모의 가람(伽藍)을 완성하였다.

「세계의 문화유산」 등록에 즈음하여

Registration for World Cultural Properties

강봉진 / 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ang Bong-Jin

그러므로 사찰(寺刹)의 연기(緣起)는 고신라(古新羅)에 있으나 현존 유지(遺址)는 경덕왕(景德王)대의 중창형식(重創形式)을 남긴 것으로서 신라통일(新羅統一) 이후의 형식을 남긴 것이다.

이후 8·9차의 중건(重建)이 있었으나 근본 형태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

사찰은 고대지상에 축조하였는데 석재를 가지고 전면을 쌓고 동서에 자하문(紫霞門)과 안양문(安養門)의 2루문을 세우고 그들 문 전면에 기교한 19층과 16층의 석계단다리 청운교·백운교(靑雲橋·白雲橋, 국보 23호)와 연화교·칠보교(蓮華橋·七寶橋, 국보 22호)를 가설하고 곳곳에 건물을 연결하는 보랑(步廊)을 두는 등 장려기묘(壯麗奇妙)한 미를 표현하여 당대의 예술미를 자랑하고 있다.

사찰의 배치는 당(唐)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었으나 특히 전면의 석계단다리(청운교·백운교)와 다보탑(多寶塔, 국보 20호) 석가탑(釋迦塔·無影塔·三層石塔, 국보 21호) 등의 석탑은 신라건축의 독창적 특성을 발휘하였던 것이다.

가람의 중앙에 대웅전(大雄殿)과 극락전(極樂殿)을 건립하고 무열전(無悅殿) 비로전(毘盧殿), 관음전(觀音殿),地藏전(地藏殿), 광학장강당(光學藏講堂), 5백성상전(五百聖像殿), 천불전(千佛殿), 만세루(萬歲樓) 등의 누각전당을 즐비(楡比)하게 진열하고 대웅전의 앞마당에는 동에 다보탑, 서에 석가탑을 상대로 한 장려한 위용(偉容) 등 당대 건축술이 우수하였음을 상상하고도 남음이 있다.

극락전 내부에는 국보27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金銅阿彌陀如來坐像)을, 비로전 내부에는 국보26호 금동비로사나불좌상(金銅毘盧舍那佛坐像)을 각각 안치(安置)하였다.

제51대 진성여왕(眞聖女王)이 또 불국사의 중건을 맡기던 후 수차의 중수가 거행되었으나 이조 선조(宣祖) 26년 임진왜란(壬辰倭亂)을 당하여 명화로 석교보탑 이외의 목조건물은 전부 회진(灰燼)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러므로 현존한 목조건물은 모두 그후에 재흥된 것이다.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進峴洞) 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3년 1월 21일에, 「慶州佛國寺境界內」를 「史蹟 및 名勝」 1호인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2) 석굴암(石窟庵)

석굴암은 불국사후산(吐含山)에 축조한 것인데 경덕왕 10년 불국사를 조영한 국상 김대성(金大城)이 전생부모(前生父母)의 명복(冥福)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서 축조한 것이다.

양식은 북위·수(北魏·隨) 당(唐)시대의 중국 석굴양식의 모조였지만 상이한 점은 중국 석굴양식이 자연 암벽을 개착하여 그 내부에 불상을 조각하였던 것에 대하여 경주석굴은 화강석재로 석굴을 구조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자연석 석굴과 같이 보이도록 축조한 것으로 그 인공(人工)과 노력(努力)이 얼마나 컸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내부천장은 궁륭천장(穹窿天障)으로 구성하고 중심석에 웅려(雄麗)한 연화형의 조각을 장식하였다.

그리고 내부 각면에는 불상을 조각하여 신라예술의 극치(極致)를 자랑하고 있다.

굴의 구조는 방형(方形)으로 된 전실(광3칸반·심2칸)과 원형(圓形)으로 된 후실(좌우경22척6촌·전후경21척7촌2분)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선도(광약2칸·심약간반)가 있다. 선도(羨道)에서 굴암으로 들어가는 여구 양편에는 팔각형석주가 있고 후실로 들어서면 둥근주벽이 높이 약 3척 폭 6척의 요석대(腰石臺) 위에, 높이 약 8척 광 약 4척의 장판석(長板石)을 세워 벽을 삼고, 판석 위에는 천부나한제보살상(天部羅漢諸菩薩像)을 조각하였다.

다시 벽 위에는 10개의 감실(龕室)이 있어 그 속에는 제천(諸天)의 보살좌상(菩薩坐像)이 안치되고, 그 상부로 부터 기묘한 궁륭천장이 구조되고, 천장의 중심석에는 연화문을 조각하였다.

중앙에는 높이 약 5척 직경 약 2칸의 석연좌가 있고, 선도 상부 미석(楣石)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었다.

평면까지도 연화를 상징하고 방형, 구형, 직각, 둔각, 대소, 심천, 철요(凸凹)의 변화무궁한 구조로 구성되어 웅려하고 전아(典雅)한 맛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만큼 신라예술의 정수(精髓)를 발휘하였다.

석굴암은 경상북도 월성군 양북면 범곡리 89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3년 1월 21일에 「石窟庵石窟」를 국보24호인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3. 해인사(海印寺)·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및 판고(板庫)

(1) 해인사(海印寺)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籍)에 의하면, 해인사는 해동(海東)의 명찰(名刹)로서, 신라 제39대 애장왕(哀莊王) 3년(唐貞元18年, 서기 803년)에 창립(創立)했다고 한다.

창립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중수(重修)한 바 있다.

해인사는 임진왜란 때, 한국의 유명한 사찰인 금강산장안사(金剛山長安寺), 지리산화엄사(智異山華嚴寺), 덕유산수덕사(德裕山修德寺), 속리산법주사(俗離山法住寺), 양산통도사(梁山通度寺), 동래범어사(東萊梵魚寺)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찰이 모두 병화의 피해를 입었으나, 다만 홀로 이 가야산해인사(伽倻山海印寺)만이 일본군이 침입하지 않았고, 따라서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재화(災禍)를 면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이조 숙종(肅宗) 21년(淸康熙34年, 서기 1695년) 우연히 화재가 일어나 동쪽귀의 여러 요사체(寮舍體) 및 만월당(滿月堂), 원음각(圓音閣) 등의 당각(堂閣)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

다음해 봄에 또 화재가 일어나 서북쪽의 여러 요사체 및 무열전(無悅殿)이 모두 불타버렸다.

따라서 영정(英正)년간(淸乾隆)에 이를 재흥하였던 바 순조(純祖) 17년(淸嘉慶22年, 서기 1817년)에 또 불에 탔다.

그후 재건하였으나 충분히 옛날모습으로 복원하기에

는 불가능 하였다.

고종(高宗)8년(淸同治10년, 서기 1871년)에 이르러 법성료(法性寮)가 또 불에 났다.

숙종조(肅宗朝)로 부터 고종조(高宗朝)에 이르는 약 200년간에 전후 총 7번이나 화재를 당했었다.

이 사실은 해인사실화적(海印寺失火蹟)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와같이 여러번에 걸쳐 화재를 당함으로써 오늘날 남아있는 당우(堂宇)는 모두 근세에 건축된 것이고 또 당우의 수량과 그 배치도 크게 옛날과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창립당시의 것으로 남아있는 것은 다만 3층석탑과 석등의 2기에 불과하다. 현재의 배치를 보건대 홍하문(紅霞門)이 가장 남쪽에 있다. 봉황문(鳳凰門), 해탈문(解脫門)을 지나 구광루(九光樓)에 이른다.

그 북쪽은 조금 넓은 평지를 이루고 삼층석탑 및 석등이 자리잡고 있다. 좌우에 승방(僧房)이 있고, 다시 북쪽의 19단의 석계를 오르면 정면에 대적광전(大寂光殿)이 있다.

서쪽에 명부전(冥府殿), 조사전(祖師殿), 해행당(解行堂)이 자리잡고 있다.

동쪽에 승방(僧房)이 있다.

대적광전의 북쪽에 다시 22단의 석계를 오르면 사주문(四柱門)이 있다.

이 사주문안에 팔만대장경을 소장하는 판고가 있다.

다시 구광루(九光樓)의 서쪽 경천문(擎天門)과 공극문(拱極門)을 지나면 경홍전(景洪殿)이 자리잡고 있다.

해인사는 경상남도 합천군(陝川郡) 가야면 치인리(緇印里) 산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6년 6월 24일 「伽倻山海印寺一圓」을 「史蹟 및 名勝」 5호인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2)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은 해인사(海印寺) 경내의 뒤편 언덕위에 자리잡은 경판고(經板庫) 안에 5층의 판가(板架)를 시설하여 보관하고 있다.

판가(板架)는 천·지·현·황(天·地·玄·黃) 등의 천자문(千字文)의 순차(順次)로써 함호(函號)를 나타내서 권차(卷次)와 정수(丁數)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 판목(板木)의 크기는 세로 24.2cm, 가로 69.6cm내외, 두께 2.6cm 내지 3.9cm로 되어 양단(兩端)에 나무를 끼어서 튼튼하게 하도록 하며, 네 모서리에는 구리판(銅板)을 붙여서 탄탄히 하고 전면(全面)에 얇게 칠(漆)을 하였다.

판목은 우리나라의 남해지방에 많이 나는 후박(厚朴)으로 되어 있고 무게는 3kg 내지 4kg가량 되는 탄탄한 것이다.

천지(天地)의 계선(界線)만 있고, 각행(各行)의 패선(界線)은 없이 방(方) 5·6분(分)의 글자가 23행(行), 각행(各行) 14자(字)씩 새겨 있는데 그 글씨 모양이 늙고 정교하여 고려판(高麗板)의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경판의 총수는, 중복된 것 121매, 부족해서 보각(補刻)한 것 18매를 모두 합쳐 총 81,258매이다.

이 대장경판은 몽고(蒙古)가 침입하였을 때 복적(伏敵)을 발원(發願)하여 시작하고 란중(亂中)에 다년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현재 전세계 어디에서도 이와같이 완전무결한 대장경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민족의 자랑이라 할 수 있다.

고려 고종(高宗)때 대장도감(大藏都監)과 분사도감(分司都監)을 두고, 수기(守其) 등 승(僧)으로 하여금 엄밀한 교정(矯正)을 보도록 해서 고종24년 정유(丁酉)에 시작해서 16년의 긴 세월을 걸쳐 조성(彫成)하였다.

처음에는 강화(江華) 서문(西門)밖 대장경판고(大藏經板庫)에 두었다가 후에는 강화의 선원사(禪源寺)로 옮겼으며, 이태조(李太祖)7년(서기 1395년)에 지금의 해인사로 옮겼다.

1963년 1월 21일 「海印寺大藏經板 81,258枚」는 국보32호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판고(板庫)

팔만대장경판고(八萬大藏經板庫)는 성종(成宗)19년(서기 1488년)에 중건(重建)한 것으로 고내(庫內)에 대장경판 81,258매를 수장하고 있다.

정면15칸(198.9척) 측면 2칸(26.5척)의 단층 우진각기와지붕 2동으로 되어있다. 같은 크기의 건물이 남북으로 나란히 건축되었는데 남측의 것을 수다라장(修多羅藏), 북측의 것을 법보전(法普殿)이라 하고, 두 건물 사이에 칠성각(七星閣)과 응진전(應眞殿)이 중정(中庭) 끝에 건립되어 있다.

기둥은 배흘림(Entasis)이 강하고 주간에는 토벽을 치고 중방상하로 광창을 냈다.

기둥 윗몸에는 창방(昌防)을 짜 돌리고 장혀(長舌)를 놓고 바로 주심도리(柱心道里)를 짜 돌렸다.

귀에는 왕지밀에 창방뿔목이 안초공(按草工)으로 되고 평주위에는 보머리가 초공(草工)으로 되어있다.

대량뒤에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중도리와 종량(宗樑)을 받게 하였고 고주(高柱)는 세우지 않았다.

바닥은 흙바닥이고 천장은 개판(蓋板)을 깐 연등천장(燃燈天障)이다.

간결한 이조초기의 수법을 간직하고 있다.

1963년 1월 21일에 「海印寺藏經板庫」는 국보52호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종묘(宗廟)

종묘는 이태조4년(서기 1395년)에 창건(創建)한 것으로서 임진왜란때 소실(燒失)되었다가 선조(宣祖)41년(서기 1608년)에 재건한 것이다.

묘내(廟內)의 면적은 66,619평이다.

이태조3년(서기 1394년) 11월 1일에 종묘의 기지(基地)를 결정하고, 4년2월에 기공하여 청송백(靑松伯) 심덕부(沈德符)로 하여금 종묘공사를 총감독케 하고 동년 9월 25일에 준공하였다.

그리하여 이태조는 개성으로 부터 선대4조(穆祖, 翼祖, 度祖, 桓祖)의 신주를 한양으로 옮겨 신묘에 봉안하였다.

종묘는 정전과 영녕전(永寧殿)의 2전으로 되어 있

는데 영녕전은 요천(祧遷)된 신주를 모시기 위하여 세종(世宗)3년(서기 1421년) 7월에 정전의 서방에 건조하였으나, 임진왜란때 양전(兩殿)이 모두 소실되어 선조41년(서기 1608년)에 재건하고 점차 증축하였다.

정전실순배열도(正殿室順配列圖)는 아래와 같다.(自西而東)

1	2	3	4	5	6	7	8	9	10
1대 태조 종밧비	3대 태종 종밧비	4대 세종 종밧비	7대 세조 종밧비	9대 성종 종밧비	11대 중종 종밧비	14대 선조 종밧비	16대 인조 종밧비	17대 효종 종밧비	18대 현종 종밧비
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대 숙종 종밧비	21대 영조 종밧비	22대 정조 종밧비	23대 순조 종밧비	문조 종밧비	24대 현종 종밧비	25대 철종 종밧비	26대 고종 종밧비	27대 순종 종밧비	
동									

※ 주) 문조 : 현종부(父) 추존

영녕전실순배열도(永寧殿室順配列圖)는 아래와 같다.

5	6	7	8	9	10	1	2	3	4
2대 정종 종밧비	5대 문종 종밧비	6대 단종 종밧비	덕종 종밧비	8대 예종 종밧비	12대 인종 종밧비	목조 종밧비	(태조의고조) 의조 종밧비	태조의고조부 태조의고조부	환조 종밧비
서협(西夾)					정중(正中)				

11	12	13	14	15
13대 명종 종밧비	원종 종밧비	경종 종밧비	진종 종밧비	장조 종밧비
동협(東夾)				

※ 주) 덕종 : 성종의 부 추존
원종 : 인조의 부(父)
진종 : 정조의 양부(養父)
장조 : 정조의 생부(生父)

묘지(廟地)경내에는, 종묘정전(宗廟正殿)을 비롯하여 영녕전(永寧殿), 전사청(典祀廳), 재궁(齋宮), 향관청(享官廳) 및 공신당(功臣堂)등의 건물이 있다.

정전 앞의 아래 묘정(廟庭)에, 생전에 임금앞에 늘어서서 읍 하듯이, 이씨조선 왕조의 역대공신(歷代功臣) 83인의 위패(位牌)가 배향(配享)되어 있는 공신당(功臣堂)이 옆으로 길게 부설되어 있다.

옛 왕조시대에는 종묘 정전에서 매년 4회씩 제향(祭享)을 올렸었고, 그 제상(祭床)에 올리는 제수(祭需)도 서민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하였으며, 제례(祭禮)는 악공(樂工)들의 주악(奏樂)으로 화려하고 장려하기가 이루 필설(筆舌)로 다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비하여 영녕전의 제향은 종묘정전제향과는 달리 년 2회 정월과 칠월에 왕이 대관(代官)을 보내어 거행케 하였으며, 그 때에 차리는 제수(祭需)도 매우 간소하여 종묘제향과는 여러면에서 훨씬 격이 낮았다.

종묘제례(宗廟祭禮)는 1945년 이래 폐지되었다가, 1969년 부터 매년 1회씩 대체를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1971년 이후 부터는 전주이씨(全州李氏) 대동종약원(大同宗約院)에서 매년 5월 첫째 일요일로 정하여 종묘 대체를 올리고 있다.

이 대체에서 구 왕실제례(王室祭禮)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宗廟祭禮」를 1975년 7월 12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로 지정하였다.

사제(司祭) 기능보유자는 전주이씨인 李在範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보다 앞서 1964년 12월 7일에, 구 왕조시대의 「종묘제례악보태평정대업(宗廟祭禮樂保太平定大業)」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하고, 그 기능보유자로 成慶麟의 10명을 지정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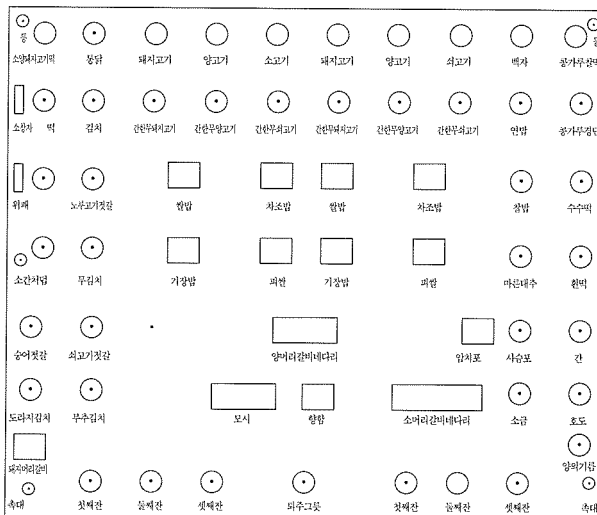
종묘대제를 거행할 때, 이들이 대금(大琴), 태평소(太平簫), 단소(短簫), 피리 등 각종 악기를 사용하여 은은한 아악(雅樂)을 취주(吹奏)하는 가운데 장엄(莊嚴)하게 집제(執祭)되는 것이다.

종묘제례를 거행하는 날 차리는 제상(祭床)의 제수(祭需)내용과 설상(設床)순서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종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1962년 7월 25일 「宗廟」는 사적 125호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끝으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판고는 이번에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록됨에 따라 정부당국에서는 판고라는 칭호를 격상(格上)해서 판전(板殿)으로 명칭을 바꾸어 부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宗廟祭禮 祭床

※ 註, 本稿에 다음 文獻을 參考引用하였기 著者 및 發行機關에 甚深한 謝意를 表합니다.
金永基者, 朝鮮美術史, 金龍園書林式會社 刊
寬野貞著, 姜奉辰譯, 韓國의 建築과 藝術, 産業圖書出版社 刊
국보도록 제2집 전적편, 文教部 發行
姜奉辰論述, 한국고대건축, 건설공무원교육원 發行
姜奉辰論述, 建築文化 83/08, 建築文化社 刊